공천기구 상설화·자질 검증시스템 마련 시급

다시 불붙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 논란 하 대안은

중앙당의 권한 시·도당으로 이양

주민·시민단체 추천제 도입 필요

새누리당 공심위가 26일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무공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 찬반의견이 뜨거운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천한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당 최고위원회와 의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나아가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현실화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이는 이유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는 여야가 대선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제도가 유지돼왔음에도 폭력과 폭언, 이권개입 등 도덕성과 자질이 의심이 되는 기초의원들이 상당수에 달해 제도 자체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6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2년간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뇌물수수, 폭력 등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기초의원만 49명에 이르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와 존속 여부를 떠나 기초선거에서 후보 의원들에 대한 엄격한 검증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민들이 후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검증시스템이 갖춰지면 무자격 후보가 소속정당의 지원에 기대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현상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공직자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계에선 정당공천제 개선책으로 ▲밀실공천과 독선적 공천을 막기 위한 공천기구 상설화 및 합리적인 후보 공천기준 확립·적용 ▲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으로 이양 ▲하향식 공천과 상향식 공천의 조화 ▲정당 외 시민사회단체에 후보자 추천 권한 부여 ▲선거관리위원회 경선 위탁 의무화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공천심사기준 사전공개와 출마자격 요건 강화 ▲정당 스펙트럼의 다양화와 정책·이념에 기반을 둔 정당 간 경쟁구도 제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는 지난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정당공천 기준의 명확화, 공천기구의 상설화, 정당참여의 차등적용 및 기초·광역선거의 분리, 주민추천제도 또는 시민단체 후보자 추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당공천 폐지 찬반 지상토론

贊 反

류한호 대표

윤민호 위원장

"폐지여론 대세…대선공약 지켜야"

류한호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 대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의회 의원들에게 물어보자. 그 자리에 정당공천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마도 그중 90%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똑같은 질문을 시민들에게 해보자. 그 답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을 국회의원들에게 해보자. 아마도 현직 의원은 대다수가 공천 유지, 일부 양심 있는 의원들만 공천폐지로 답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전직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공천폐지에 찬성한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뜨거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정당공천 폐지를 2013년 핵심운동과제로 설정했다.

2012년 대통령선거 때 여야 후보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안철수 발(發) 정치개혁의 태풍이 몰아닥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강요당했고, 이 가운데 정당공천은 그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슬그머니 발을 빼려 한다. 그 이유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는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특권이기 때문이다.

정당공천 폐지 주장은 선거 전반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색이 옅은 기초지방선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또 정당이 공식적인 공천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가 특정 정당 소속임을 밝히고 선거운동에 임하는 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는다. 정당의 선거 관여에 제한을 가하자는 것이다.

이는 정당이나 정당공천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기초지방선거에까지 작용함으로써 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공천으로 인해 후보자들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당선 후 임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돈줄뿐만 아니라 의원의 선거운동원 노릇을 한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소요, 악의 제도다.

현행 선거환경에서 기초선거 후보자들은 정당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거나 당선에 유리해진다. 공천을 받기 위하여 온갖 궂은 일을 다해야 한다. 공천을 미끼로 후보자들에게 노예로 복종하기를 강요하게 된다.

즉 정당공천은 국회의원들의 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요, 결국 정치적 불공정경쟁을 조장한다.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할 선거가 한 달 남았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여야 정당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이행하면 된다. 법 개정은 그 다음에 해도 된다.

"제도 오용 정당탓…보완·유지해야"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공천 권한을 가진 인사에 대한 줄서기와 비리의혹, 중앙 정치로의 종속 등 정당공천제가 가져온 폐해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있다. '정당공천'이라는 제도 때문인가? 아니면 이 제도를 잘못 활용하는 '정당' 때문인가? 후자라고 생각한다.

각 정당이 정당공천제를 유력 정치인이나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의 전권 행사에 따라 지명되는 현행의 공천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정당공천으로 나서는 폐해는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2006년 이전에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했지만 정당들은 내부공천, 즉 내천을 계속했고 이 과정은 밀실에서 진행돼 공개적인 공천보다 더 많은 폐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이미 문제가 많았던 것이 확인된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각 정당의 공천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거대 정당이 선 순위를 사용하고 있어 '묻지마 투표'를 조장하고 소수당이나 무소속에게 불리한 일괄적 선거기호 부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추첨식이나 지역의회의 의석별 기호 부여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토호정치를 개혁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각계 각층의 대표성과 정책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린 3~5인 선거구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다양한 후보 추천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정당이 아닌 사회단체나 유권자 단체는 공직선거에서 후보를 추천하거나 그 지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길이 차단돼 있다.

반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정치선진국에서는 정당의 공천 이외에도 사회단체나 유권자 단체의 후보추천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도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를 신고한 사회단체나 유권자 단체는 공직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각종 홍보물 등에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당이 자신의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았을 경우,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와 추천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더러운 목욕물을 버리다 아기까지 버릴 우려가 있다. 당장 손쉬운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니라 모든 정당이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당공천제를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조치들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닥쳐올 재앙 모른채 아프로디테에 넋나간 파리스

김은영의 '그림 생각'

(23) 트로이 목마

루벤스 작 '파리스의 심판'

호머의 '일리아드'는 트로이의 옛 이름인 '일리온'의 이야기, 즉 트로이 전쟁을 다룬 대서사시다. 황금사과 한 알로 시작된 트로이 전쟁은 오딧세우스의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트로이가 불바다가 되면서 막을 내린다. 트로이 전쟁의 명분은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를 데리고 달아난 데 있지만, 진짜 이유는 그리스인이 무력으로 트로이의 부를 빼앗으려고 일으킨 전쟁이라는 게 역사가들의 분석이다.

외부 요인으로 내부가 무너지는 치명적인 위험을 상징하는 '트로이 목마'는 그 악명 그대로 오늘날에도 '잠재된 위험' '숨어있는 재앙'임이 확실한 것 같다. 지난 주 방송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악성 코드가 '트로이 목마'로 밝혀진 것을 보면 말이다.

호머의 '일리아드'에서 가장 눈부신 장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차지하게 될 황금 사과의 주인을 가리는 대목이다. 일명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이 매력적인 신화의 주제는 루벤스, 와토, 르느와르 등 여러 대가들이 수없이 그렸다. 그 중 루벤스(1577~1640)의 '파리스의 심판'은 아름답고 화려한 색채와 빛의 묘사가 압권이다. 가장 왼편은 메두사 방패와 올빼미를 곁에 둔 아테나, 아프로디테 뒤에는 에로스, 오른 쪽 헤라여신의 발밑엔 공작새가 보인다. 아프로디테만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파리스의 눈길은 이미 넋을 잃고 가운데로 향해 있다.

이 명작에서 신화의 매력과 함께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크 미술의 회화적 격정이다. 고전적인 미의 이상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색채,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 쉼없이 꿈틀대는 운동감! '파리스의 심판'을 보면 바로크적 감각으로 대상을 탁월하게 묘사했던 루벤스의 재능에 사로잡히게 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빛日만평

- 김종두

꼬락서니 좀 봐라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
롯데제이티비 www.LOTTEJTB.com
"여행문의" 1577-6511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믿을수있는 유일 여행사
이달의 우수대리점 금남로점 062) 228-6644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062) 228-6644 ●입점 가능 매장 : 광주 전남/전북 롯데마트 및 로드샵

"장가계 VS 터키 특가할인! 알찬여행 즐기세요~!" ※장가계/터키전상품 유류할증료 불포함!
장가계 천문산/원가계 4/5일 ★무안→장가계 직항 전세기!
무안출발 859,000원부터 ▶4/1~5/20 (월,금) 출발
●특전 ●전일정 준5성호텔 숙박 ●황룡 동굴, 천문산, 발맛사지 ●천문동 (케이블카 탑승) 관광 ●전신마사지, 장가계 특식 포함
"동서양의 만남" 터키 완전일주 8일 ★국내선 2회 항공이동 포함~!
광주출발 1,849,000원부터 ▶3/29, 4/2,5,9,15,19,22, 5/3,6,10,13,17,20~ ▶3/29, 4/22, 5/13,17,31 (출발확정)
●특전 ●터키 항공 직항 이용 ●이스탄불, 에페소, 이즈미르 관광 ●양갈비 특식 (피르졸라) 포함 ●현지 국내선 2회 항공이동

"황금연휴특선! 일본으로~!" 단 한번! 기회~! 일본 유류할증료 불포함!
"전세기 특선" 오사카 3일 ★무안→오사카 전세기편!
무안출발 1,290,000원부터 ▶5/17 ★단하루~!
●특전 ●국적기 대한항공 이용 ●오사카성, 동대사, 금각사 관광 ●WTC 전망대에서 오사카의 야경을! ●롯데JTB만의 꽉찬 2박 3일일정
"일본" 북큐슈 온천♨여행 4일 ★광주→부산항 수송비용 포함!
광주출발 369,000원부터 ▶5/15 ★단하루~!
●특전 ●벳부만로얄특급 호텔 숙박 ●가마도 지옥온천♨ 순례 관광 ●NO TIP, 온천여행~ ●유류할증료 포함

"고객감사" 무료상품권! LOTTE JTB 국내여행*
"화순 힐링 푸드페스티벌" ●출발일 : 5/16~ 5/19까지!
●특전 ●화순 고인돌 공원* ●화순 힐링 푸드페스티벌 관광* ●교통비, 입장료 무료*
※지금 롯데제이티비 매장 방문을 통해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하시면 이상품이 "무료"

유럽
홈쇼핑 2/23(토) 롯데홈쇼핑 방영상품* 하늘위의 호텔 A380
동유럽 4개국 9일 2,490,000부터 ▶4/10(화),16,17,20(화) ▶4/24(화),27,30(화) 5/7(화),15(화),21(화)~
★특급호텔 3박+정규일급 숙박 ★CLASSIC 2대체험 (모퍼르트 디너콘서트+비엔나왈츠 체험) ★3대옵션 포함 (프라하야경&트램&다뉴브유람선) ★프라하2박의 집중관광 (카를로비바리,쿠틀나호라 추가)
서유럽 6국 정통 1급+융프라우 12일 3,490,000부터 ▶3/31(일) 4/4(월),11(화),17(화),18,25(화)~ ●유로스타 및 초고속 열차 TGV 탑승 융프라우+나폴리/폼페이/보엔트 관광, 세느강 유람선
러시아 북유럽 +에스토니아 9일/12일 [품격 9일] 389만원부터 ▶4/15,29 5/6,20,27 6/3,10,17~ [실속 12일] 279만원부터 ▶4/19,24 5/18,22,29 6/12,19~ [품격 12일] 499만원부터 ▶4/25(월) 5/9(화),16,23,30 6/13~
※유럽 전상품 유류할증료 불포함

동남아
홍콩일주 2층 버스탑승+점보식 업그레이드 3일 499,000원부터 ▶3/29,30 4/1,2,3,4,5,6,7,8,9,10~ ●소호거리&허리우드로드 관광,에그타르트 시식, 딤섬특식
삼뎀삼色 홍콩 마카오 심천 4일 629,000원부터
싱글벙글 태국/초특급 방콕 파타야 5일 409,000원부터 ▶3/29,30 4/5,6,7,12,13,14,19,21,22~
푸켓 초특급/$150옵션포함 5일/6일 599,000원부터 ▶3/29 4/4,5,9,12,16,18,19,23,24,25,26~
보라카이 호핑투어/오일마사지 5일 399,000원 부터 ▶매일 출발~
봄맞이 ★특가 세부 4일/5일 ●플렌테이션베이 3/4박, 전신마사지 1회 제공 649,000원부터 ▶4/3,4,6,7,10,11,13,14,17,18,20,21~
※동남아 전상품 유류할증료 불포함

일본/괌사이판
오사카/나라/교토/고베 아리마 온천 3일 499,000원부터 ▶3/30,31 4/1,2,3,4,5,6,7,8,9,10,11,12,13,14~
마츠야마 도고온천 세토내해 3일 499,000원부터 ▶3월31일! 단1회 벚꽃시즌 파격특가!
가이케이/하와이 온천 3일/4일 649,000원부터 ▶ 4/2,5,7,12,14,16,19,21,23,26,28,30 5/5~
북해도 핵심일주 삿포로/하코다테 4일 749,000원부터 ▶3/29,30,31 4/1,2,3,4,5,6,7,8,9,10,11~
홈쇼핑 롯데홈쇼핑 3월16일 방영 ★선착순 팁포함
사이판 PIC 골드 아동반값 4일/5일 899,000원부터 ▶음료쿠폰, 부티키 10%할인권, 옥외용품셋트
괌 온워드 전식 워터 파크 4일/5일 749,000원부터 ★플라네시안디너쇼+외부특식 2회
사이판 월드 골드 4일/5일 899,000원부터
※일본/괌/사이판 전상품 유류할증료 불포함

중국
황산 상해 항주 5일 ★정상숙박+VIP 리무진★ ★취온천+송성가무쇼★ 649,000원부터 ▶3/29,30,31 4/1,2,3,4,5,6,7,8,9,10~ ▶대한항공 이용, 전신 마사지, 서호유람선, 운곡케이블카 왕복 ▶상해 관광, 6대 특식 제공
북경 만리장성 ★유럽풍 쉐무른호텔 4일 299,000원부터 ▶3/29(화),30,31 4/1,2,3,4,5,6,7,8,9,10~ ▶국적기 이용, 쉐무른호텔 3박, 부국쉐저, 만리장성 케이블카, 인력거 투어
대만 화련 야류 4일 439,000원부터 ▶3/30,31 4/1,2,3,4~ 지우펀
서안병마용 4일/5일 479,000원부터 ▶3/29,31 4/1,2,3,4,5,6,7,8,9~
곤명♨ 5일/6일 649,000원부터 ▶3/29 4/1,5,8,12,15,19,22~
계림♨ 5일/6일 549,000원부터 ▶4/3,6,13,17,20,21~
※중국 전상품 유류할증료 불포함

미주/남태평양
3월~6월 하와이 특가찬스! ▶매일 주중 출발 기준
입급 특가 찬스! 하와이 입급 6일 1,190,000원부터 ★플라네시안 민속촌, 오아후 섬일주 포함 ▶특식 2회 (마카티 씨푸드 부페, 플라네시안 민속촌 부페) 제공
특급 특가 찬스! 하와이 메리엇호텔 6일 1,499,000원부터 ★플라네시안 민속촌, 오아후 섬일주 포함 ▶특식 2회 (마카티 씨푸드 부페, 플라네시안 민속촌 부페) 제공
호주 여행 전문 시드니 마담투쏘 디너크루즈 6일 1,290,000원부터 ▶3/29 4/5,6,7,8,9~
시드니 골드코스트 씨월드 6일 1,640,000원부터 ▶3/29 4/3,5,8,10,12~
★품격 타스만 빙하 호주 뉴질랜드 남북섬 +모코이아섬 10일 3,690,000원부터 ▶3/29 4/7,9,12,14,16~ ▶전문 인솔자 동행, 힙포함, 특식 11회, 디럭스 스파, 특급 호텔
※미주/남태평양 전상품 유류할증료 불포함

SIT
골프 대회참관+36홀 명문골프 라운딩+시내관광* 2013 LPGA 롯데 챔피언십*
하와이 골프 참관 5일 ▶4/19 [일급] 2,099,000원부터 [특급] 2,399,000원부터 ●화갤러리참관일정/36홀라운딩/가이드팁포함/대회기념품증정
석가탄신일 연휴* 대련 골프 3일 1,199,000원부터 ▶5/17 출발 [라운딩비 전부포함]
현충일 연휴* 일본 다이센트레킹&관광 4일 499,000원 (추가비용없음) ▶6/6 출발 DBS크루즈 동해항
크루즈 싱가폴/쿠알라룸푸르/푸켓 레전드호 5일 1,390,000원부터 ▶4/1
MSC 동부지중해 두바이/이태리 크루즈11일 그리스/크로아티아 4,790,000원부터 ▶4/26 5/10,30~
※골프/크루즈 전상품 유류할증료 불포함

●광주권 :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컵,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기아점, 백운점, 구시청점, 양동점, 상무역점, 문화전당점, 서광주점, 매월점, 광산점, 농성점 ●전남권 :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공정광고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 사항:운송/숙박/식사요금,여행자보험,관광진흥기금,공항이용료,인내륜비용,현지입국료,전쟁보험료,유류할증료 (일부상품 미적용,유류할증료 변동가능) • 선택경비:상품과 출발일에 따라 고객이 선택하는 현지 선택관광에 대한 선택경비가 있으며, 고객의 선택에 의한 안내원 봉사료는 선택경비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LOTTEJTB.com에서 확인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38-29 유월빌딩 • 일반여행업등록 제 2011-0002호 (서울시 은평구) •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가입 • 5억 보증보험 가입 • 최소출발인원 10인이상 • 숙소 : 1급호텔이상 • 교통편 : 항공/버스 • 상기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문의접수 : 1588-8692